

지면안내	<p><b>02</b> 2011 새터, 신후배간 단합 돋보여 -열정과 패기가 돋보인 장기자랑과 응원전</p>	<p><b>03</b> 인상된 등록금 어디에 사용되나? - 2011년 사업계획, 적립금 5백억의 사용처</p>	<p><b>04</b> 아랍 민주화 혁명 - 튀니지, 이란, 알제리, 예멘,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p>	<p><b>05</b> 평양성을 통해 본 신라의 통일 - 통일신라는 진정한 '통일신라'인가?</p>	<p><b>07</b> 기자 3인의 000광고살기 - 일상에서 아이팟, 하이힐, 스마트폰을 지우다.</p>	<p><b>08</b>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의 역사 - 고품질제의 '서양차' 부터 프랜차이즈 커피 커미UNITY까지</p>
------	--	---	---	---	---	--

## 삼 학 승

### 당신도 '영웅'을 기다리십니까?

'등록금이 올랐나요?' 라는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번 해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 결의 대회가 열리는 걸 안다고 해도 학교까지 오는 것이 멀어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도, '등록금이 올랐나? 모르겠네. 난 알고 있었어?'라며 옆 친구를 멍하게 바라보는 표정에서도 뒷맛이 씁쓸하긴 마찬가지였다.

캠퍼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무력감이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듯 완벽한 무력감을 안겨 주었을까.

대학 등록금, 등록금 동결, 등록금 인상...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화두는 이제 더 이상 신선한 것이 아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따위의 수식어도 익숙한 느낌을 준다. 가끔 뉴스에 등장해 대학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익숙하긴 마찬가지다. 너무 익숙하고 익숙한 나머지 지루해져서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동적이고 무력한 인간은 나약하다. 그리고 불행은 나약한 인간을 더욱 사랑한다. 지금 학생의 참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학생회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수동적일수록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각종 논의는 당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다. 등록금은 이미 인상됐고 우리는 평균 4백만원의 금액을 납부했거나 미래에 내야 할 몫으로 장부에 매달아놨다.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막연히 누군가 '영웅'이 될 거라며 손을 놓지는 않았으면 한다.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는 이야기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이상미 편집국장

## 올해 등록금 작년 대비 2.6% 인상

지난 2년간 동결된 등록금이 올해 2.6% 인상됐다. 올해 등록금은 인문대·사회과학대학 3,434,000원(2.78%인상, 93,000원 증가), 예술대학 4,625,000원(2.49% 인상, 111,000원 증가), 공과대학 4,521,000원(2.46% 인상, 110,000원 증가)으로 평균 2.6% 인상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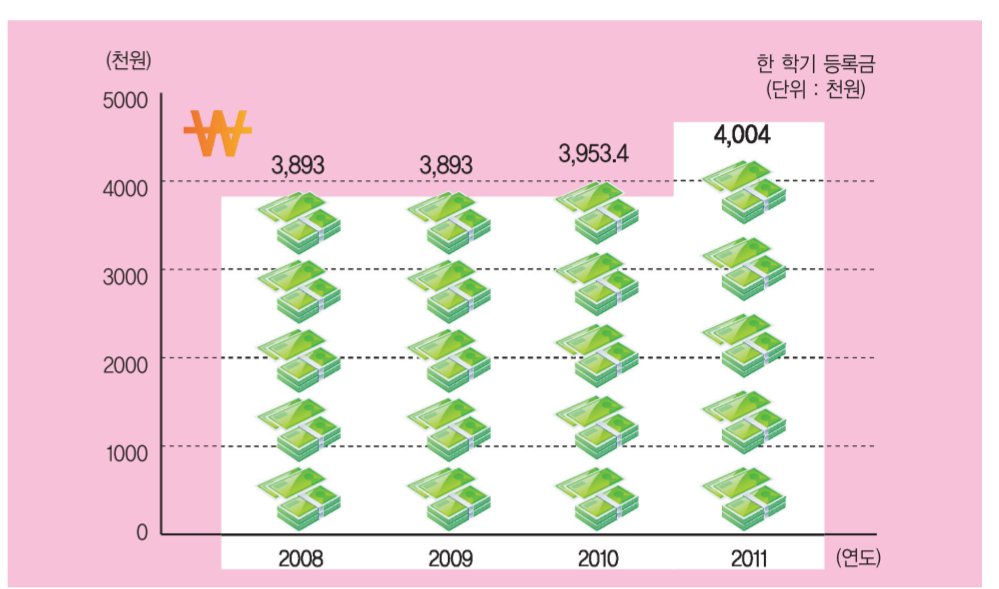
이번 인상은 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되 단대별로 정액제를 차이를 주는 방식으로 인상됐다. 이는 단대별로 등록금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퍼센트로 인상 시 금액 차이가 더욱 커짐에 따라 전 학생회장단이 제시한 방법이다. 장호철 전(前) 총학생회장은 "인·사대의 예·공대 간 등록금 액수 차이 때문에 인상 금액 차이가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간 등록금은 인·사대 3,341,000원, 예대 4,514,000원, 공대 4,411,000원으로 인·사대와 공·예대가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났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측과 학생대표, 외부인까지 총 7인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령에 의거해 등록금을 심의하는 목적의 법적기구로 올해부터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교 측 참석자는 이창원(행정학과) 기획협력처장, 박준철(역사문화학부)학생지원처장, 장영우(기획협력팀)팀장, 박우홍(동문회)사무국장, 외부인으로 심우진(회계사), 학생 대표로는 장호철 전 총학생회장, 고수진(역사문화) 4 전 인문대회장이 참석했다. 장영우(기획협력팀)팀장은 등심위 회의장에서 지난 2년간 연속해서 등록금을 동결한 사실과 함께 신규사업을 제시하며 5%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학생대표 장호철 전 총학생회장은 "법정 전입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인에 문제점이 있다"며 500억 상당의 적립금 사용계획 공지를 요구했다.

두 번째가 등심위가 열린 1월 19일에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총학은 같은 날 비상 학생회장단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30개의 회장단 구성 중에서 12개 기구(총학생회, 인문대학생회, 한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역사문화학부, 공과대학생회, 기계시스템학과, 멀티미디어공학부, 예니·제품디자인과, 경제학과, 경영학과)만 참여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학생회장단은 '등록금 동결,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 법인이사회의 무능'을 거론하는 등록금 동결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성명서와 결의대회 일정을 교내 인터넷 커뮤니티인 낙산의 메아리에 공지했다. 그러나 결의대회에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강준섭(매디 4)학생은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 적립금 사용계획이라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호(회화 3)등 2명의 회화과 학생은 "적립금이 미래를



▲ 2008~2011 총 등록금 변화 추이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적립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대의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높다"며 동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결의대회 이후, 1월 22일 추가회의를 갖고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당시 박미성(행정 3 휴학)사회과학대 건설준비위원장은 "추가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대부분의 학생회장단은 참여인원이 저조

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한 학생회장단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게다가 등록금 협의가 늦어지면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약 30%의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1월 24일 마지막 등심위에서 학생측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학교가 수용하고 2.6%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18일 열린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에게 정주택 총장이 학위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총 1천 35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예술대학 실기과목, 상대평가로 변경

### 정확성, 신뢰도 구축된 평가방법이지만 학점경쟁 치열해질지도

이번 학기부터 예술대학의 실기과목 평가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정영만(학사지원팀)팀장은 "교육부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학점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과목을 상대평가 하는 것을 권하는 공문이 여러 번 보내왔다"며 "이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예술대 교수들도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동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김아영(시각영상 4)학생은 "기존에는 하나의 작품으로만 평가를 했지만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출석반영

률을 높이거나 이론시험을 보는 과목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동욱(예니제품 2)학생은 "실기 작품은 상대적인 점수로 매겨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나래(의패 3)학생은 "절대평가는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상대평가는 타인의 점수가 나에게도 영향을 있어 함께 잘 해야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단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주희(회화 2)학생은 "상대평가라 경쟁이 치열해 지는데 부족한 선배들과 수업

을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 진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전종찬(예니·제품디자인)학과장은 이에 대해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면 학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기과목은 학생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노력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다"며 "예술분야는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실기점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점따기에만 몰두할 수도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교수도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고

심해서 평가를 하는데 몇 %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절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사 령

수습기자임	변
박종민(한국어문 2)	이상철(한국어문 2)
1월 24일자	

# 당신의 여가시간은 이만큼 로 하십시오

목마른 자여  
진실의 우물을 파  
갈증을 해소하라

눈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가서지 않으면 볼 수 없는게 많습니다.  
현실에 다가가 **진실**을 보고 싶은  
혹은 그러한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한성대 신문사**에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수습기자임

박종민(한국어문 2)

1월 24일자

모집 대상 1학년 신입생    모집 기간 3.18 (금) 까지    전형 방법 지원서 접수 후 필기 시험    문의처 760.4186/010.7124.5831

# 2011새터, 선후배간 단합 돋보여

지난달 2월 20일부터 22일, '2011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새터는 20대에 필요한 세 가지인 '꿈! 열정! 그리고 한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1천700명의 새나기와 재학생들이 참가했다.

첫 날은 과, 단대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각 학과 학생회 소개 후 장기자랑과 게임, 응원전 연속으로 구성되었다. 새내기 페스티벌이 펼쳐진 이튿날은 장호철 전 총학생회장의 인사로 막을 열었다. 그는 "학교는 작지만 큰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앞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진 화려한 조영효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정주택 총장도 새터를 방문해 새나기들을 만났다. 정 총장은 "힘든 입시경쟁을 뚫고 신입생이 된 걸 축하한다"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4년동안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학생성공교육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학생이 되면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진다.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이후 교내 팀 소개와 방송제, 해외봉사단 소개, 동아리 공연과 절주교육이 이어졌다. 민중노래패 동아리인 들불은 멋진 연주를, 댄스동아리 NOD는 소녀시대 메들리와 스트릿댄스, 비스트의 '숨' 음악에 맞춰 절도있는 안무를 선보였다.

이어진 슈퍼스타 H에서는 새나기들이 참가해 노래와 춤 솜씨를 펼쳤다.

새내기 페스티벌 2부에서는 응원전과 초대기수의 공연, 동아리 공연으로 꾸며

졌다. 행사의 메인인 단대별 응원전 역시 활기를 띠었다. 예대의 노랑·초록 종이 비행기는 무대 한쪽을 메웠고 작년에 이어 응원전 우승을 차지한 공대는 특유의 굵고 힘찬 저음의 목소리, 다양한 색상의 손수건 등의 응원도구와 소주병 인형 탈을 쓰는 등 눈과 귀를 자극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동물의 탈을 쓰고 등장에 굽직한 '3단고음'을 보여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후 단대별 장기자랑은 각 단대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올해도 예대대학의 합동공연이 우승을 차지했다. 공연은 학생들의 팝핀웨이브와 스트릿댄스,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회화과는 옷벗기 게임을 하면서 온 몸에 그려진 화투분장을 보여줘 신입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은 무용학과와 신입생들이 무대에 올라와 소녀시대 '훗' 무대와 댄스 배틀, 신나는 음악에 각각의 학생들이 개성을 선보였다. 무용과 김지현(무용 4) 학생회장은 "새터 며칠 전부터 재학생들이 안무를 짜 와서 신입생들과 만나 연습했다"며 "끼가 많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장기자랑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예대 뿐만 아니라 사대의 장기자랑도 눈길을 끌었다. 과음·안전사고를 주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등 채널 별 다른 테마로 TV 속의 화면을 재현하는 의미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김경희(회화 1)학생은 "예대공연이 제일 즐거웠다. 예대만의 단합이 너무 보기 좋았다. 입학 전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초대기수의 공연에서는 '하니 패밀리', '다비치', '바닐라시티'의 공연과 동아리 트라이엑스와 왕산악의 멋진

무대가 이어졌다. 임효주(회화 1)학생은 "초대가수의 공연이 즐거웠다. 새터를 통해 같은 과 학생들끼리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2월 21일 권후관(건강관리실)팀원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는 작년 우리학교 새터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정보와 대학생 음주 사망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129응급환자이송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응급환자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 이번 새터에서는 이러한 예방책이 응급환자 발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작년 새터에서는 음주로 인한 응급환자가 3명, 응급실을 5번이나 방문했다. 그러나 이번 새터에는 음주로 인한 응급환자는 1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 외에도 팔 또는 목을 다쳐 깁스를 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있었다. 권후관 팀원은 "새터에 참가하는 선배들에게 사전교육을 단단히 하고 새터에 가서 타대의 사례와 작년 사례를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많은 학생들이 주의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새터 참가자들의 사전교육과 절주교육을 통해 응급환자가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구내 학생식당 리모델링 공사 완료

지난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구내식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새 단장을 마쳤다.

이번 공사를 통해 학생식당 퇴식구의 위치, 식탁과 의자의 배열 등이 변경됐고, 매점의 입구가 2개로 늘어났다. 또한 커뮤니티 존과 커피점이 새롭게 조성됐으며, 식탁과 의자, 실내 전등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됐다. 교직원식당 공사도 함께 이루어져 자율배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배식대의 위치가 변경됐다.

구내식당 김보라 영양사는 "식사만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식당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다가 가는 것 같다. 실제로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학생들도 많아졌고,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반응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 홍보대사 '하랑' 9기 모집

오는 18일 까지 학교 홍보대사 '하랑' 9기 지원자의 서류 접수를 받는다. '하랑' 홍보대사가 되면 1년 동안 학교 행사 지원, 입시 홍보, 홍보물 모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홍보대사 선발 심사 기준은 애교심, 유행, 표현력, 장기 등 네 가지이다. 현재 선발 일정은 22일까지의 서류심사, 24일 입시 모집, 25일부터 31일까지의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홍보대사로 선발되면 학기별로 특별 장학금이 지급되며, 유니폼과 홍보대사 사무실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면, 경력 증명서가 발급된다. 서류접수는 우촌관 3층에 있는 대외협력팀에 직접 방문으로 이루어진다.

### 미국·일본·대만 교환학생 모집해

오는 18일까지 미국, 일본, 대만으로 가는 교환학생 선발을 위한 접수가 진행된다. 파견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이다. 선발되는 미국 19명, 일본 4명, 대만 5명 등 총 28명의 학생은 일반 교환학생과 방문학생 신분으로 나눠 파견된다. 신청은 종합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3월 28일 이후다.

이번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영어권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University of Evansville, Montclair State University, Medicine Hat College ▲일본 홋카이도 교육 대학, 아마쿠치 복지문화 대학 ▲대만 푼산 대학, 카이난 대학

## 등정관

이상원(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이 교수는 지난 해 12월 13일에 개최된 제6회 2010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주최)에서 'ASKU 우수저술상'을 받았다.

해당 저서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워크북」(2009, 미술문화)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고 애니메이션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Simple Bacteria Cooperative Optimization with Rank-based Perturb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 2011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박지영 (자식정보학부)전임강사

학력  
· 학사: 연세대학교  
· 석사: 연세대학교  
· 박사: 연세대학교

주요경력  
· 연세대 기록보존연구소원  
· 한성대 시간강사



Paul Wiltshire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학력  
· 학사: Southampton Solent University  
· 석사: Sussex University

주요경력  
· 대교 ESL Teacher



Scott Dorval McLaughlin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학력  
· 학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주요경력  
· 공복어교, Native English Teacher

# 한성 울타리 떠나고, 들어오고

## 2011학년도 학연식,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2011학년도 학연식이 지난 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연식에는 신입생들과 총장, 이사장, 보직교수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올해 입학한 11학년 신입생은 총 1천 765명이며 각 단대별로는 인문대가 342명, 사회과학대가 507명, 예술대가 380명, 공과대가 536명으로 공과대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다.

이 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한성 학연식,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성 학연식은 교수와 신입생이 특수 제작된 학습노트와 꽃을 교환하는 자

리로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가졌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우등장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나와 장학증서 및 제주도 여행권을 받고, 진리 및 지선장학생들에게도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학연식에서 정주택 총장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한성대 문중의 아들, 딸이 되었다. 교수진들도 이들을 자식이라 여기고,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입학에 축하했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경쟁 사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자신이 노력해야함을 잊지 말 것" 등을 당

부했다. 한편, 지난 달 18일에는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천 121명, 일반대학원 석사 47명, 특수대학원 석사 165명, 박사 21명의 학위 수여자들과 총장, 동창회장 및 보직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수여, 총장 격려사, 동창회장 축사, 졸업생 발전기금 약정, 교가제창, 폐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장 수여식에서는 성적우수자,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학



생회 간부 및 기타 공로대상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정주택 총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개인과 사회발전에 잘 써주시기를 바란다. 이후에도 한성대는 인재양성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또 한용수 동창회장은 "이야기의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세네카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졸업 축하했다. 학사 및 석사, 박사 졸업자 명단은 신문사 홈페이지(http://press.hansung.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1년도 1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3월 14일(월) ~ 2011년 6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랍 민주화 혁명, 간단히 짚어보기”

아랍의 민주화 혁명은 현재 국제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다. 역사는 이를 세계 민주화의 한 장면으로 기록할 것이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 미 해군대학원 중동학과 로버트 스프링보그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은 아랍인의 심리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이로 인해 아랍 내 민주화의 불씨가 터진 것만은 틀림없다”고 아랍 민주화 사태를 규정했다.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장면을 시위 배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 ① 튀니지

1. 대학교 졸업 후 과잉행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청년 부아지지가 작년 12월 17일 경찰의 모욕적인 청과를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지난 1월 5일 숨졌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를 튀니지의 국화에서 이름을 따 '재스민 혁명'이라 부른다.

2. 지난 해 12월 19일 시작된 시위로 약 219명이 사망했다. 벤 알리 전 대통령은 민주화 혁명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고 이번 해 1월 퇴진했다. 혁명 이후 튀니지 전역은 국가적인 혼란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3천 명의 시위대가 튀니지 정부청사에서 모하메드 갠누치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푸아르 메바자 임시대통령은 민주화 혁명에 따라 새 헌법을 제정할 제한 의회 선거를 7월 24일 치를 것으로 밝혔다.

3. 친미정권과 외부 원조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벤 알리 일가의 부정축재도 국민들의 원성을 산 요인이다.

## ② 이란

1. 높은 물가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삭감을 규탄하고 아미디네자드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 수도 테헤란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마무드 아미디네자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진압으로 인한 유혈 충돌이 벌어졌으며 전국에서 시위로 2명이 사망하고 수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3. 이아틀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1989년~현재), 마무드 아미디네자드 대통령(2006년~현재)가 현재 이란을 지배하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종교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보유하는 신정체 국가다. 또한 대표적 반미국가로 미국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 ③ 알제리

1.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독재 타도 및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 높은 실업률과 식량 부족 등이 주 원인이다.

2. 노조, 인권운동가, 변호사 등 여러 단체의 협의체인 '알제리 민주화를 위한 연합(Coordination for Democratic Change in Algeria)' 중심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3. 압델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한 유화책으로서 지난 24일 19년간 유지해온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는 야당과 시위대의 요구로 군부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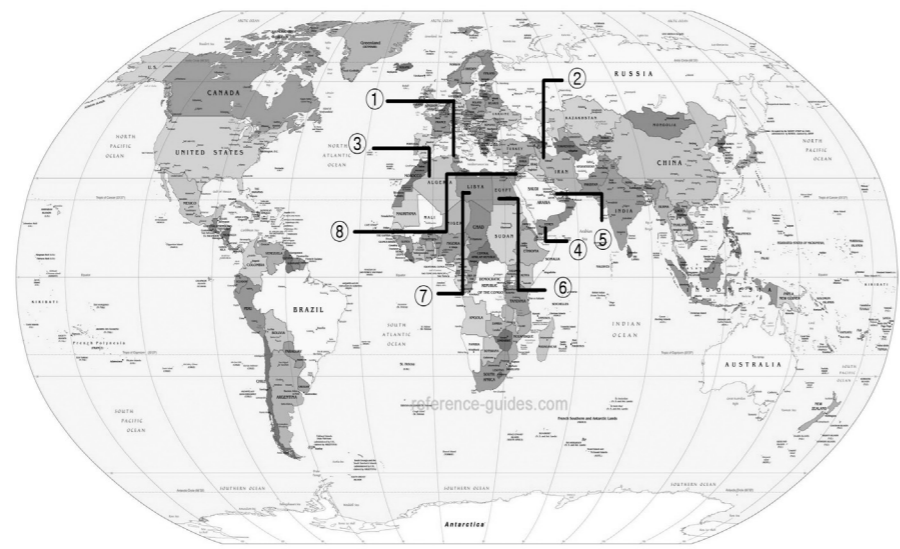
4. 주요 수출 품목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등 몹살을 앓고 있다.

## ④ 바레인

1. 일자리 부족 및 실업률 증가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 수도 마나에서도 반정부시위가 벌어져 수천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바레인의 반정부 시위는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시위 주최 측은 수니·시아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헌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정부는 시위확산을 막기 위한 유화책의 하나로 치안분야에서 2만개의 일자리 창출, 야



## ④ 예멘

1. 살레 대통령의 부패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 32년간 장기집권해온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0만명 가량의 시위대가 모인 사나대학에서의 시위에는 처음으로 여성들도 참여했다. 시위는 타이즈와 아덴, 사다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인기가 쏠리는 2013년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국민 40%가 극빈층에 속하는 아랍의 최빈국으로 꼽히고 있다. 산유국이지만 세계 시장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4. 권지도자를 포함한 대화, 가구당 1000나르(약 400만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제의했으나 시위는 확산되고 있다.

5.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1999~현재)이 통치자이다. 인구 대부분이 시아파(약 70%)이나 수니파인 알칼리파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걸프 산유국이자 지역금융 중심지이다.

## ⑥ 이집트

1. 고실업 및 악화된 경제상황, 무바라크 30년 독재 등을 들 수 있다.

2. 1월 25일부터 18일간의 반정부 시위 동안 3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치범 석방, 공공부문 월급 15% 인상 등의 유화

\* (1. 시위배경 2. 시위상황 3. 특징)

## ⑦ 리비아

1.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42년 독재와 높은 실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2. 카다피를 본거지로 수도 트리폴리까지 반정부시위가 본격화됐다. 민주화 시위대인 반정부 세력과 카다피 국가원수 친위세력의 치열한 교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카다피 국가원수의 유혈진압은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보안군의 진압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16일부터 시위대와 보안군·친정부 시위대 간에 최루탄 발사 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최소 20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했다. 현재 교전 상황은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며 카다피 망명설이 회자되고 있다.

3. 북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무아마르 카다피 최고지도자가 42년간 독재정치를 펼쳐 왔다. 리비아 내에서 탈출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국민을 구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리비아와의 무기거래 및 각종 경제관계를 제재하고 있다.

## ⑧ 요르단

1. 높은 물가와 실업률이 주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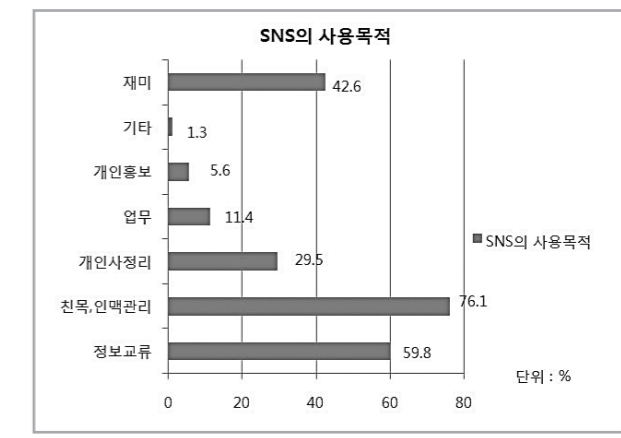
2. 고용정책의 선진화와 물가안정,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총리를 국왕이 임명하는 현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내각을 해산하고 아랍 인사들을 포괄하는 개각을 단행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3. 압둘라 2세 국왕(1999~현재)이 46년을 통치한 후세인 국왕의 뒤를 이어 집권한 왕정 국가다. 청년 실업률 증가 및 인플레이션 등 사회·경제 문제와 지역평화 문제를 겪고 있다.

## 통계로 본 한국사회

### SNS 사용목적은

### 친목·인맥관리 비중이 76.1%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인맥관리' 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인가? 가끔 포털사이트에서는 마당발 인맥으로 화두에 오른 연예인들의 소식이 눈에 띄기도 한다. 서점가에 나온 자기계발서 중에서 인맥관리비법을 고치하는 책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정'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인맥은 하나의 능력으로도 인정받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7백만명을 넘어 서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DMCM미디어에서 조사한 SNS 사용여부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83.6%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SNS 사용목적으로는 '정보교류'가 59.8%, '친목·인맥관리'가 76.1%,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2.6%를 차지했다. 기존의 인맥관리라고 하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했지만 현재는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인맥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제 어느 때이건 불특정의 다수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정보가 빠르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맥 늘리는 허무함을 안긴다. 실제로 기자의 주위를 보면 "저와 연락하실 분들만 댓글 다시고 나머지 분들은 연필로우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만 관심사에 대한 정보공유 혹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 뿐, 개인사에 대한 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과 친해지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소수다. 일시적인 대화나 필요한 부분만 교환하기 위한 인맥을 진정한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바 숫자'라는 개념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단바 교수가 만들어 낸 것으로 사람의 뇌가 '가까운 인맥'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SNS에서 쌓을 수 있는 인맥은 무한대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얕으면 그만'이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일시적인 다수의 인맥보단 '알맹이'가 큰 소수의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재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대한민국을 이끄는 1%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학군사관(ROTC) 52기·53기 후보생 모집안내

-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2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3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1년 3월 7일 ~ 4월 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9일(토) / 발표 : 4월 29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5. 2 ~ 5. 20(3주) / 발표 : 6월 10일(금)
    - 신원조회 : 6월 13일 ~ 8월 19일(10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목)
- ▶ 문의처 : 학군교 (02)3403-7121~4 / 대학 학군단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 신라의 통일, '통일신라' 가 될 수 있나



▲ 2003년 개봉한 영화 '황신벌' (좌)과 올해 개봉한 영화 '평양성' (우)의 한 장면이다.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나 스크린으로 가져오면 그 역사는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준익 감독은 2003년 개봉한 '황신벌'에 이어 올해 1월 개봉한 '평양성'을 통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평양성'에서는 삼국통일의 마지막 보루인 고구려 평양성에서의 전투를 담았는데,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는 당나라의 야욕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고구려와 연합 작전을 계획하는 김유신 등의 인물을 코믹스럽게 그려냈다.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660년에 일어난 황신벌 전투에서 김춘추(태종 무열왕)는 당나라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후 소정방(蘇定方)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김유신의 5만 병력과 합세했다. 백제의 장군인 계백은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싸웠으나 사비성은 함락되었고, 이후 4년간의 백제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자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의 평양성은 수·당과의 거듭된 항쟁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연개

소문이 죽자 자식들의 세력다툼까지 일어나 신라와 당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9월에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멸망했다.

신라인들은 당과의 교류를 통해 진분을 쌓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라이벌 한국사' (김갑동 지음, 애플북스에 따르면 "당은 신라를 이용해 먼저 백제를 친 뒤에 고구려를 공격할 목적으로, 그리고 신라는 당의 협조로 백제를 칠 자정으로 신라와 당의 협조관계가 성립했다"고 설명한다. 또 "연합군을 조성할 즈음 신라와 당은 당이 평양 이북지역만 차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백제를 물리친 뒤 당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직할 영토로 편입하려 한다"고 서술한다. 그 이후 신라가 먼저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를 공격하고 군량보급 차단(670년), 태소성전투(675년), 기벌포(岐伐浦)대첩(676년) 등으로 당나라를 압박하여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라오동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뤄진 신라의 삼국통일을 두고 학계에서는 몇 가지 이론이 끊임

없이 논의되어 왔다.

첫 번째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주장은 삼국을 통합한 한 집안을 이루었다는 '삼한일통' 의식이라는 견해다. 『삼국통일 전쟁사』(노태돈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는 "해체된 고구려는 신라에 흡수되었고 백제는 669년부터 벌인 당과의 전쟁을 거쳐 완전히 병합하였다"고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로 외세에 의존했다고 하는 비자주성과 불완전한 영토의 통일이론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통일신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 국가로 인정할 경우, 신라가 과연 백제는 물론 고구려까지 통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제는 몰라도 고구려는 대부분의 영토와 국민이 신라에 흡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삼국통일 전쟁사』에서는 "신라의 통일 이 지닌 영토적 통합의 불완전성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라가 외세와 결탁해 동쪽의 나라를 공격한 '비자주성', '반민족성'을 강조한다. 정호섭(역사문화학부)교수는 이러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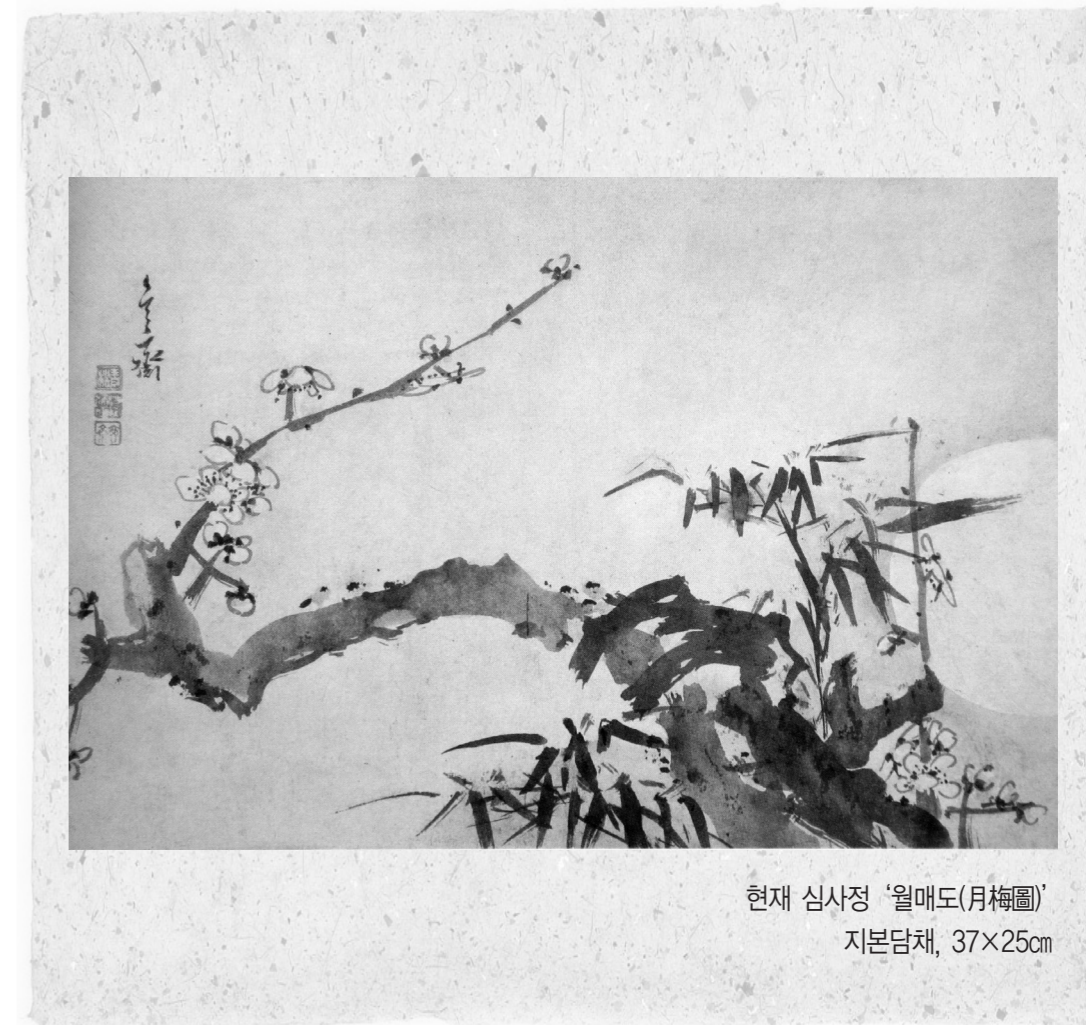
설에 대해 "민족사학에서 바라본 시각으로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으므로 '통일신라'라는 명칭보다 '남북국시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 번 째는 "한국사의 범주에 고구려사를 포함시킬 수 없으니 삼국통일이라는 개념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정호섭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는 삼국시대에는 아직 민족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므로 민족관념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제기된다"며 "역사에 있어서 많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고 그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중·고등학교 국사시간에 배우는 내용에만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역사 교과서가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습한 내용만 역사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으로만 만드는 일이다.

이예진 기자 eodry11@hansung.ac.kr

## 동양화 스토리

# 천비람 끝에 핀 꽃이라 더욱 귀하여라



현재 심사정 '월매도(月梅圖)'  
지본담채, 37x25cm

매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전하며, 조선 시대에는 심사정, 김홍도, 조희룡, 장승업이 뛰어난 매화그림을 남기고 있다. 조선 중기 문신 신홍은 '매불매향(梅不賣香)'이란 시에서 "매화는 한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더라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인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며 매화를 예찬하였다.

흰 눈이 내리는데도 맑은 향기를 풍기는 매화는 온갖 꽃이 피기 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화과'라고도 부르며, 봄을 가장 먼저 전한다 해서 '철간선춘', '일지춘색'이라고도 부른다. 매화그림의 요체는 늙은 등걸과 생긴 가지, 그리고 몇 개씩 꽃이 피는 것을 품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활짝 핀 꽃보다 봉오리 둘 더 높이 솟았다. 또 보름달을 배경으로 뻗은 가지에 들성등성 피어있는 모양을 가장 품격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예부터 매화는 네 가지 귀한 것이 있다 하여 관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는 함부로 번성하지 않아 그 희소함이 귀하고, 둘째는 어린 나무가 아니라 늙은 줄기의 모습이 귀하고, 셋째는 살찌지 않고 홀쭉 마른 것이 귀하고, 넷째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갓 피어 날 꽃봉오리가 귀하였다.

현재 심사정은 겸재 정선, 관아조 영석과 함께 '사인삼재(士人三齋)'로 일컬어지며, 표암 강세황과 함께 조선 후기 문인화의 전개를 주도했던 화가로, 사군자를 통해 자신의 회화이념을 구현하였다. 그의 묵매화는 간결하면서도 기상이 있고, 빈 듯하면서도 시상이 담긴 한국적 묵매화의 경지를 보여준다. 특히 '월매도(月梅圖)'는 청신한 봄밤 영롱한 빛을 밝히고 있는 달빛

아래 붉은 매화가 마치 뻗어 나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만개하기 전의 꽃 봉우리와 방금 기지개를 한 듯 꽃잎을 펼친 매화가 조화를 이룬다. 거칠고 힘찬 붓질로 그려진 굵은 매화가지에서 가늘고 어린 나뭇가지가 다시 솟아나와 곧고 지순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힘차고 역동적인 필치로 그려진 매화와 온아한 빛을 머금고 매화를 바라보고 있는 보름달은 시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매화 구경을 으뜸으로 쳤다. 눈속의 매화를 찾아가는 행위는 도(道)를 구하는 것처럼 경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선비들은 매화를 보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의 향기를 발하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몇 십리 몇 백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화를 찾아 나서곤 했는데, 최연의 '이른 매화' 시에 보면 "은갖 나무가 얼어붙은 계절에, 홀로 외로이 봄기운을 드러내니, 바람과 서리에도 기상이 새롭고, 산과 못에서도 정신이 변함없네. 눈처럼 속이 어여쁨을 다루니, 향기를 맡고서야 진짜임을 구별하네. 일찍 소식 전함을 좋아하여, 한 줄기 격어다가 친한 정을 들여보려네"라 하였듯이 옛 선비들의 묵매 애호의 진정을 알 수 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춥고 길게 느껴졌던 2010년 겨울, 지루했던 시간과 무거웠던 마음을 소담드런 매화꽃 향내를 가득함에 묻어 보내고 아직은 이른 봄 차가운 바람이지만, 겨우내 봄을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에 봄 매화꽃 향기 가득함으로 채워지길 소망해본다.

이근우 / 현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 학술서평

# 삼국은 과연 '통일' 이었나?

『삼국통일전쟁사』 노태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라 통일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화제는 과연 신라가 이룩한 통일을 '삼국통일'이라 칭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일면으로 '남북국시대론'과 '후기 신라론', '중국고구려사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남북국시대론'은 신라의 통일에 영토적 불완전성과 통일과정에서

내포된 비자주성을 문제로 삼는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를 전부 수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라가 한반도 남쪽에 머무르는 동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그 위에 존재했기 때문에, 통일된 시대가 아닌 남북국시대로 봐야 옳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후기 신라론'은 삼국이 하나가 된 것에 통일의 개념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본래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국은 본래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고구려사론'은 근래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국통일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북공정과도 연계되고 있다.

이렇게 신라 삼국통일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책은 신중하게 반론들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국시대론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흡수와 '백제통합전쟁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기 신라론에 대해서는 삼국의 주민들이 동질적인 집단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고구려사론에 대해서는 동북공정과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책의 서두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에 대한 고찰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 통일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시사해 주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책의 본문에 제시된 것이 삼국 통일의 과정이다.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신라의 통일이 정통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책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삼국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저자는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외교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실어 놓았다. 이를 통해 신라가 단순하게 외세의 힘을 빌린 것인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것인지에 대해 또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English Honors Program 영어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한성대학교 교양영양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English honors Program을 시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영어 우수자를 선발하여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성대학교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영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비 학점 과정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내용

- iBT 토크 1주당 3시간/연 24주 토크전문 강사 25명 4개 반
- 그룹 스피크 1주당 2시간/연 24주 한성대 외국인 교수 5명 20개 팀
- 영어몰입캠프 방학 중 1주일/연 2회 한성대 외국인 교수 25명 4개 반

교육기간: 1년(예:2011년 3월~2012년 2월)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2~4학년 100명(2011년 3월 기준)

특전: 단기 어학 연수 대상 선발 시 우선권 부여(필리핀,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및 해외 연수 학생 선발 시 우선권 부여

English Honors Program 수료증 발급과 성적표에 명시

사설

스마트 혁명

스마트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랩스 좋은, 깔끔한, 똑똑한 등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영리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이다. 그래서 인지 요사이 많은 제품 앞에 스마트가 붙어 다니며,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지능을 갖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 한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미니, 스마트 카드, 스마트 폭탄 등 이미 우리 주변에 스마트가 붙은 제품들이 넘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단연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이다. 무선인터넷이나 전화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블랙베리 앱월드, 노키아 오비 스토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장터이고 이 장터를 통해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PC에서만 가능하던 동영상, 게임 등의 오락거리나 정보검색이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졌다.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통한 비즈니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22억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시장의 82.7%를 차지한 앱스토어가 단연 압도적이며

앞으로는 그 시장규모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 네트워킹 서비스가 휴대폰에서 가능해져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들의 글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친구추천이나 팔로워를 통해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다.

서로의 의사 소통 수단이나 사회 네트워킹 시스템의 획기적 발전으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잊어버렸던 옛 추억들을 만날 수 있으며 좋은 글들이나 생활 속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 주변의 기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욱 진화하여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고 있다. 문제는 환경이나 기기의 사용자인 우리들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웃과 대화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이제는 휴대폰으로 대체되었다. 휴대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다. 이웃이 휴대폰으로 대체되어가는 중이다. 주변기기의 진화로 생긴 여유 시간이 우리 마음의 여유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주변에 넘친다. 눈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을 열고 내가 처 놓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스마트 혁명이 일어났으면 한다.

의화정



전완식 교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

전위작가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인식의 참여

前衛는 원래 군사용어로 전투할 때 선두에 서서 돌진하는 부대를 말하는 것이었다. 전위라는 단어가 예술에서 사용되는 것은 19세기 무렵으로 과거 인습과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새로운 혁명적 사고를 주장하는 작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7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까지는 전 세계가 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혁명, 프랑스 혁명, 시민사회의 발전과 귀족사회의 몰락, 산업혁명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격동의 시기에 예술인들도 있었다. 환경적으로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프랑스의 싸움전에서 신진 작가들은 등용되지 못하였고 값비싼 천연 안료를 대체하는 싼값의 화학 안료 등장, 그리고 음악-문학 등의 장르에서 새로운 시도와 사회적인 인정, 일본 칼과 도자기무역으로 포장되었던 '우끼에요'(일본 전통 목판화)의 수입 등 미술적인 분야에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조건이 생성되고 있었다.

지금 나열한 내용도 현 시점에서 보면 별것이 아닐 수 있어도 그 당시에는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불합리한 전통에 맞서는 것은 당시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규범에 얽매던 싸움전에서 떨어진 우수한 작가들은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사상과 작품에 대하여 더 열정을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연 안료를 린시드(유화 물감)에 굳지 않게 하는 기름)에 개서 사발에 담아두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서는 아예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으로 된 튜브에 잘 혼합된 값싸고 편리한 유화물감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 인상파 화가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완성되지 못한 그림은 사진을 통하여 실내에서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인상파의 광학적 연구는 환경적 재료적 조건이 맞았었다.

음악과 문학도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신화, 종교, 왕족-귀족의 이야기에서 민중의 이야기와 사랑이야기 페미니즘적 소재 등 한정적인 소재가 확장되면서 금지시되었던 이야기를 읽기위한 열정은 전 유럽을 들뜨게 하였다. 미술도 기존의 관습적 소재에서 탈피하여 누드가 공공연하게 그려지고 사물과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체파, 표현파, 다다이즘, 추상파, 초현실주의 등의 혁신적인 예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의 한쪽 단면에는 '우끼에요'가 있다. 일본에서 수출되던 칼과 도자기의 파손을 막기 위해 포장지로 쓰던 우끼에요는 일본

에서는 너무나 흔한 그림이고 방식이었지만 평면적 구도와 색채, 입체의 표현은 당시 유럽 화가들에게는 충격적이었었다. 우끼에요의 기법은 수많은 유럽 전위작가들의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전위작가도 사회적 인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 전위가 있어야 전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위에 선다는 것은 매우 큰 소명의식과 용기가 필요하다. 소명의식이 약하거나 용기가 부족하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소명의식을 갖고 '변화되는 환경'과 '변화되어야 하는 환경' 모두에 예민해져야 한다. 또한 실현의 용기로 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앞장을 누가 서느냐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벌수도 낭비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전위작가의 용기와 노력에는 우선 박수를 보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전위작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담론을 이해하고 활용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前衛라는 용어가 거처어 보이지만 아름답고 인간다우며 무의식 세계의 규명을 내포하고 있어 前衛적 사고의 긍정적 활용은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 본다.

'@@@호를 읽고' 한성대신문 평가단 모집

- 때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한 당신,
- 사회 전반에 흥미가 많아 시사지나 신문을 자주 읽는 당신,
- 그래서 한성대신문을 매번 읽어보는 당신,
- 내가 읽은 신문 혹은 그 주제에 대해 글로든 말로든, 타인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
- 지금, '어? 이거 내 얘기잖아.' 하고 있는 당신
- 당신 거기 있나요?
- 한성대신문이 평가단으로 활동할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한성대신문 평가단
- 모집기간: 3월 18일(금)까지
- 신청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 평가단 혜택: 한 호당 문화상품권 1만원 권
- 활동내용: 격주로 발행된 신문을 읽고 좋았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부분을 짚어주세요.
- 활동기간: 2011년 1학기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편집국장 010-7124-5831

독자투고-영화 리뷰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이예슬 (배지 3)

은행원인 해원은 근무 중 트러블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휴직을 통보받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러 무도로 휴가를 떠난다. 무도는 총 다섯 가구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작은 섬마을이다. 해원이 어렸을 적 잠시 머물렀던 외할아버지댁과, 그녀의 친구 복남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섬마을에서의 순박한 모습 그대로 자란 복남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섬에 도착하여 복남과 회포를 풀고 휴식을 즐기던 해원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던 작은 섬마을이 유독 복남에게는 그렇게 싫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섬 안에서 해원이 목격한 복남의 현실은 남편과 섬사람들의 온갖 끔찍한 폭력들로 얼룩져 있었다. 자신에게 감옥생활과도 같은 무도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탈출하기를 원하는 복남에게는 해원이 유일한 실낱 같은 희망이었지만, 해원은 모든 게 잘못된 현실이란 걸 알면서도 복남의 섬 생활을 그대로 방관하고 외면한다.

그러던 중 복남의 분노를 극도로 달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터지고, 복남은 그동안 섬마을 사람들에게 쌓여온 한과 분노를 피의 복수로 풀기 시작한다. 동시에 추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 주지 않은 해원에 대한 원망도 함께 얼룩지며, 해원 또한 복남의 복수극에 말려든다.

단순히 보자면 이 영화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자의 피 튀기는 복수극이다. 하지만 그 이면의 다양한 요소들은 복남이 가진 분노를 결코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극대화시키고 복잡하게 그려낸다. 극 중 배경인 무도는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이면엔 복남의 숨통을 조이는 온갖 악력으로 얼룩진 곳이다. 여기에 폐쇄적이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섬마을은 한 여자가 그 안에서 학대당하는 현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영화는 복남이 당하는 부당한 일들이 사실 그대로 스크린에 흐르며 절정에 이른다. 정말 무자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생각 외로 주인공의 복수극을 보며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강했다. 그러나 복수극이 분노 표출로 시작하여 광기가 서리고 피로 얼룩지며 막을 내렸을 땐 복수의 쾌감보다는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복남과 해원은 친구였지만 외면하는 방관자와 현실에 방치된 피해자의 관계로 변해버렸고, 사회 이면의 부패한 기득권층의 현실은 무도에서 억압받는 복남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복남을 외면하는 해원의 모습은 타인의 삶엔 무관심하며 철저히 개인위주인 현대인들의 어두운 면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의 엔딩 후에 강한 카타르시스 뒤 밀려드는 쓸쓸함은 영화 속과 연결되는 현실 속 모습을 때론 일 것이다.



한줄댓글

내가 공강시간에 하는 일은?

이번 한 줄 댓글 주제는 '내가 공강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수업 사이에 생각이 쓸쓸한 공강시간, 신입생에게 알려주고 싶은 공강 이용법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송유림 (기제 2)

수업도 중요하지만 젊은 학생들에게는 필수인 건강 지키기! 낙산관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하기 (체력이 따라줘야 공부도, 속도 ㅋㅋㅋ)

이호경 (행정 2)

대학로 가서 연극보고 오기. 대학생이라면 문화생활 즐겨야죠. 대학로가 코앞인데 아깝잖아요. 공강시간 잘 찾아보면 여유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혼자 가야할 때도... 저랑 가실 분?

박애록 (지정 2)

연구관 옥상에서 캠퍼스 누리기(한성대 3대 관광지 중 하나, 다리도 있고 운동기구도 다른 데랑 다릅니다)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7호 당첨자는 이호경(행정 2) 학생입니다.

봄 발레 축제 Spring Ballet Festival

# Triple Bill 2011 - Ballet tude No.1, Mechanical Anxiety, Paquita

세 개의 다른 작품을 한데 묶어 공연한다는 의미인 Triple Bill. 모두 서로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한편, 모두 동작성이나 구조가 강조된 작품들이다. 동작 속에 절제된 감정 혹은 심상이 내포되어 있다.

**Etude** : 피터 차이코프스키의 잘 알려진 피아노협주곡 1번 1악장을 사용하였으며, 이 곡의 악상과 구조를 발레 이미지로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Mechanical Anxiety** : 많은 사람, 속도, 결과의 조합은 대개 기계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계가 아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일관성을 내포하고 있고, 경계에서의 위태로움 혹은 불안은 어찌면 필연적이다. 사람과 체계가 빠른 속도로 조합된 상황의 이러한 느낌을 나름대로 표현했다.

**paquita** :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점령한 에스파냐에서 집시 소녀 파키타가 프랑스군 장교 루시앵의 생명을 구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지만 신분의 차이와 루시앵에게는 귀족 출신의 약혼녀가 어려워져 세계적으로 애호되는 대표적 발레 레퍼토리 중 하나이다.

**주최** : HUB

**후원** : 한성대학교

**일시** : 2011. 3. 23(수) 8:00 PM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안무, Staging**: 박재홍 / 지도: 조정희, 이종은, 고현정 / 의상: 송보화, 플리에

**장치**: 플리에/ 사진: 최성복/ 영상: 김정환/ 분장: 이현진

**출연**: 발레단에서 활동중인 졸업생과 무용학과 발레파트 재학생

**문의**: 010-7376-8677 (조교:신선미)

# 기자 3인의 ○○○○ 꿈고 살아보기



##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팟

요즘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 이들은 모두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정보의 종류에도 거의 제한이 없다. 어떤 것이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찾아 볼 수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MP3에 이어폰만 꽂으면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현대인의 기계사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계가 너무 편리하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만 쓰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인간은 기계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기계와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해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가지고 있던 아이팟을 일주일 동안 신문사에 맡기기로 했다. 컴퓨터에 있었던 아이팟도 지우고, 모든 음악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옮겨 놓았다.

물론 음악을 평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괴로운 결정이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매체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웠던 것 같다. 하지만, 어디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기사를 써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내 아이팟은 일주일간 편집국장 선배의 손에 넘어갔다.

처음 하루는 그러저럭 보낼 땀 뻘 났다.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신선함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귀에 무언가 들리지 않는 것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특히 지하철을

타는 것은 고역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한성대입구역까지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동안 머릿속으로 온갖 공상을 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팟이 없어지니 음악 서적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아이팟을 끌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듣는 음악이 없어도 음악 서적을 읽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억지로 읽으려 해도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음악이 없으니 평론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글로만 음악을 본다는 것은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내가 아이팟이라는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실감되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팟에 저장된 음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팟이 없으니, 음악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컴퓨터에 있던 MP3 파일들과 들고 다녔던 아이팟을 동시에 접할 수 없게 되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음악을 접하는 수단이 아이팟 하나 뿐이었던 것이다. 평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음악 듣기가, 인터넷과 MP3의 영역 안에 갇혀있었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고 아이팟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아이팟을 찾았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신으면 아름다워지는 하이힐



“풍동한 여자들은 굽어서라도 살을 빼고 키가 작은 여자들은 힐을 신어서라도 키를 높여야 한다”고 빅토리아 베컴은 말했다. 하이힐에 대해 사벨의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아만다 할레치가 남긴 말은 이보다 좀 덜 노골적이다. “하이힐만 신고 있다고 해서 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관능적인 여성은 이미 태어날 때 하이힐을 신고 있으니까.”

하이힐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이힐은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 주겠다며 여성들을 유혹한다. ‘저 하이힐을 신으면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환상에 나는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좁은 굽 끝에 모든 체중을 싣고 하루종일 꿰차서 서 있을 만큼 하이힐이 차지하는 물건일까?

일주일동안 하이힐과 안녕을 고하기로 했다. 일주일간 내게 허용된 신발은 캔버스 아니면 단화 두 종류 뿐이었다.

‘하이힐 끌기’를 결심한 다음날부터 나는 거울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강제적인 스타일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키160에 평균체형인 나에게 하이힐 없이 어중간한 길이의 무릎 길이 스커트나 핫팬츠, 배기팬츠 등은 소화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호피무늬 티코트나 레드 립스틱 등 좋아했던 물건들이 하나 둘씩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대신 일명 ‘바람막이’라 부르는 고어자켓이나 백팩 같은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에 손이 갔다.

그러나 답답함은 옷장 앞에서 나 혼자 느

낀 감정이었다. 늘 하이힐을 신고 가던 장소에 운동화를 신고 갔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오늘은 하이힐 신지 않았네” 혹은 “키가 좀 작아졌네” 그 뿐이었다. 내가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답답함을 느꼈던 나조차 점점 하이힐이 없는 일상에 잘 적응해갔다는 사실이다. 그 주 내내 광고 포스터를 붙이려 다니면서 나는 학교 곳곳을 뛰어다니야 할 때가 많았고 이에 운동화는 툭툭히 제 몫을 했다. 하이힐을 신고 환상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멋을 부리던 모습에서 수수하고 실용적인 평범한 여대생의 모습이 오히려 변해가고 있었다. 원래 활동이 잦고 이 동거리가 긴 나의 일상에는 하이힐보다 캔버스화가 좀 더 어울렸을지 모르겠다.

하이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족과 깊게 관련된 물건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하이힐이 나를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 주리라는 환상과 기대는 순전히 나의 생각일 뿐이다. 하이힐에 대한 그런 환상에서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여성들의 하이힐에 대한 열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장 내가 하이힐에 반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일주일의 미션이 끝나면 날부터 나는 다시 즐겁게 하이힐을 신었다. 하지만 좋았던 물건들이 하나 둘씩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대신 일명 ‘바람막이’라 부르는 고어자켓이나 백팩 같은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에 손이 갔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끌기로 마음먹은 날, 다른 사람의 아이폰 앱과 휴대폰과 교환을 했다. 일주일동안 보지 못한 스마트폰에 미련이 남았지만 아무렴 어쩐가. 어쨌든 살아보기로 작심한 마당에, 한번 버티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끌겠다고 작심한 이유는 간단하다. 나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면서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고,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대화, 구글 검색 등을 하는 나는 좁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편리한 어플들은 나를 도와주고 동시에 귀찮게 한다. 책을 보거나, 회의할 때,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도 설새없이 부르르 떠는 휴대폰을 보자면 정말 성가시게 짜이겠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꼭 붙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빠져나간 이후 예상과 달리 불안감이 엄습했다. 평소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나는 오랜만에 컴퓨터의 전원버튼을 눌렀다. ‘누군가가 날 찾다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궁금함으로 수시로 메일을 확인하곤 했다.

그날 이후부터 어딘가를 이동할 때 내 손에는 책이나 메모장이 들려있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심심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들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어플 중에서 알람이 울리면 지정된 수화문제를 풀어야 하는 ‘네버알람이 풀’이 있다. 비공식용으로 종이에 수화문제를 끄적거리던 나는 ‘벨만 울리는’ 알람에 늦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주 활동지역이 아닌 곳을 가야 하는 날이면 지하철 안에서

느긋하게 검색을 하던 나는 출발 전에 노선을 검색해 기록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어플인 ‘지하철정보’ 어플과 ‘버스도착어플’이 없어 행여 지하철과 버스가 지나갈까봐 험레벌떡 뛰어다녔다.

허전함과 함께 온갖 잡념이 들끓기도 했다. 개강 초, 강의실을 몰라서 매 수업 전마다 미라클 컴퓨터실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꼭 있어야 공부할 것 같아 해 볼 수 있고 메일을 바로 확인해 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편리한 어플들은 나를 도와주고 동시에 귀찮게 한다. 책을 보거나, 회의할 때,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도 설새없이 부르르 떠는 휴대폰을 보자면 정말 성가시게 짜이겠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약 4개월이 되었고, 단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끌었다. 그 기간을 돌이켜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무언가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내 다이어리와 연습장은 생각들로 빼곡이 채워진 것도, 지하철에서 책장을 몇 장 더 넘길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것일까. 아직 잘 모르겠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되돌아간 지금은 어플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나를 찾아달라고 끊임 없이 흔들려달 걸 생각하면, 어쩌면 휴대폰과의 ‘밀당’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기자들의 ‘꿈고 살아보기’ 그 후 신뢰하는 물건과 의존하는 물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들은 편리함이나 효율성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꿈고 살아보기’는 이러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얻어낸 결론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물건에 대한 의존 때문에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 너무 과민 신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아이팟은 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결국 하나의 물건에 집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장점만 가려진 것들을 전부 잃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기기들을 끌고 지내는 도중에 놓쳐버린 부분을 깨닫기도 했다.

하이힐은 후자의 예이다. 우리는 검증된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검증된 브랜드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이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검증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주일의 ‘격리’를 통해 본 결과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고 해서 아름답고 멀어진다는 생각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우리가 검증된 물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맹목적인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주간식단표

2011년 3월 14일(월요일) ~ 3월 18일(금요일)

	월 3/14	화 3/15	수 3/16	목 3/17	금 3/18
<b>한식</b>	돌솥제육비빔밥 (국내산) 어묵탕 부추전 만두지무침 김치(배추:국내산)	부대찌개 쌀밥(국내산) 탕수육(국내산) 무말랭이무침 김치(배추:국내산)	안동찜닭 (국내산) 콩나물국 무말랭이무침 김치(배추:국내산) 과일	달다리곰탕 (미국산) 쌀밥(국내산) 공중떡볶이 마늘종지무침 깍두기	새싹야채비빔밥 미소장국 미트볼케찹소림 해초무침 김치(배추:국내산)
<b>양식</b>	모듬가스정식 (치킨(국내산)가스 & 생선가스) 야채샐러드 클링글컷 피클	오므라이스 & 수제소세지 콩나물국 야채샐러드 만두지	해물스파게티 & 마늘빵 견과류샐러드 피클 요쿠르트	새우굴소스볶음밥 & 새우튀김 미소장국 파인애플샐러드 김치(배추:국내산) 과일	두부가스 & 볶음밥정식 크림소프 브로콜리샐러드 과일

◆ 위 식단은 식재료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쌀, 돼지고기, 닭고기(닭정육, 닭장각제외), 김치(배추:국내산), 쇠고기(호주산), 닭정육(미국산), 달걀(달다리:미국산)을 사용합니다.

### 기자수첩

#### 여성성에 대한 고착화된 시각을 깨달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의 발레를 가르치게 된 나는 6~7세의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시절을 회상하곤 한다. 아이들은 공주 드레스를 입고 바비·미미인형을 안고 다니며 토레틀끼리 모여 왕자, 공주 역할을 맡아 역할극놀이를 한다. ‘핑크색’ 치마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아이들의 수업이 익숙해질 때 즈음, 다른 경향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배구와 축구를 좋아하고 공놀이를 즐긴다. 여자 아이들의 수업이라 예쁜 동작들로 수업을 구성했던 나는 축구공을 사용하면서 공차기를 시작하는 여자 아이들을 보고 당혹감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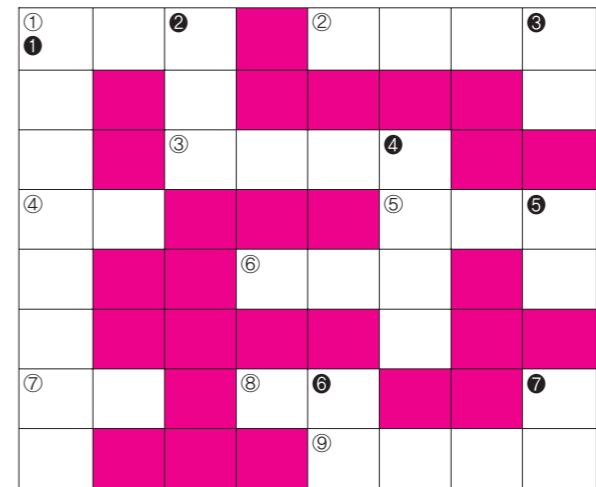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만화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고, 만화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에 반해 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특히 공주 시리즈 동화에서는 그 우상성이 큰 영향을 발휘한다. 공주들은 예쁜 미모와 드레스를 가지며 멋진 왕자가 구원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공주의 화려한 외모와 예쁜 드레스는 여

자아이들에게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동경, 풍요한 물질적 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심어줌으로써 소비자향적, 외모 지향적 성향을 키워준다. 이러한 효과는 꼬마 여자아이로 하여금 핑크색 드레스와 왕관, 인형 등으로 방안을 채우고 공주드레스를 입고 다니도록 부추김으로서 여성성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주’들에게 익숙했던 내가 수업시간에 공차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던 것은 어린 여자아이들의 여성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고착화된 시각에 갇혀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접하는 만화영화는 어쩌면 무심한 얼굴로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도 모른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가로세로



#### • 가로

- 1 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
- 2 한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적 상대한 위치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
- 3 눈꺼풀을 움직이며 눈을 지푸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 4 농촌계몽소설 『장록수』를 쓴 소설가 겸 영화인
- 5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 주는 각종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싸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
- 7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음어리진 마음
- 8 매우 정서적으로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 상태, 로맨스, 로망스라고도 함.
- 9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 • 세로

- 1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대학 구성원들이 모여 그 금액을 상의하는 기구
- 2 차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달렁거리는 새바이
- 3 더하거나 빼는 일
- 4 가슴에 좀 빠근한 느낌이 있는 것 ○○○○하다
- 5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사람
- 6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
- 7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한 무엇인가’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 고급화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 전쟁터의 군사들을 위한 커피로 등장한 인스턴트커피. 다방문화 발달과 함께 대중화 꾀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뜨거운 물만 있으면 커피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커피의 소비율은 원두와 비교해 9대 1에 달한다. 이는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인스턴트 믹스커피와 원두커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커피의 세계, 세계의 커피』(김재현 지음, 스펙트럼)에서는 “태이크아웃 전문숍 등의 고가의 커피와 자판기 커피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원료인 커피의 품종차이다. ‘아라비카’는 재배조건이 까다롭지만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이다. 향미가 우수하고 신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카페인 함량이 낮은 편이다. 생두의 모양은 납작한 청록색, 연녹색, 노란색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에스프레소 바리에이션 음료들은 주로 아라비카 커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둥근 모양이며 녹색이 돌고 크기가 작은 편이다. 콩고와 원산지인 이 원두는 아라비카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고 낮은 고도에서 잘 자라지만 향이 약하고 쓴 맛이 강해 저급으로 분류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인 리본커피의 이종혁 바리스

타는 “원두를 볶은 후 갈아서 기기로 추출한 것이 원두커피, 에스프레소커피이고 인스턴트커피는 볶아진 원두를 간 후에 식품첨가물을 해 동결·건조시킨 제품이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동서식품의 자료에 의하면 “볶아서 분쇄한 커피를 섭씨 175°C정도의 고온에서 커피액을 추출한 후 냉동건조하거나 분무 건조해 제품화 한 것이다. 이 때 인스턴트커피의 향과 맛이 원두커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커피정유를 첨가하기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인스턴트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마시게 되었을까?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에서 커피 맛을 처음 본 사람은 고종이다. 그런데 그 때 고종이 마셨던 커피는 원두커피일까? 인스턴트 커피일까? “안락한 한 잔의 커피를 위하여” 이윤호 지음, M미디어에서는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일 년 남짓한 생활을 통해 고종황제는 신식 서양인 커피의 맛에 매료되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커피 매니아가 되었다”고 서술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다방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후에도 많은 작가들이 다방을 개업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미군과 함께 인스턴트커피가 들어와 커피의 대중화와 더불어 거리에는 다방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스턴트 커피는 1901년에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전쟁터의 군사들을 위한 야전용 커피’가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전쟁 후의 다방은 젊은 문화인들이 모여 예술적인 모색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다방문화가 발달해 1970년대 이후에는 음악다방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커피’라고 하면 커피1:프림2:설탕1.5비율의 ‘다방 커피’를

떠올리게 되었다. 70년대 후반, 커피 자동판매기의 보급확대와 함께 커피믹스, 캔커피의 개발로 그 시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고 특히 사무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의 등장은 커피믹스의 소비를 더욱 증가시켰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 인스턴트커피의 수출액은 중국·러시아·이스라엘 등지에서 지난해 1억3천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인은 성인 1인당 1년에 커피를 312잔을 마신다고 발표된 요즘, 인스턴트 커피믹스 시장에서 동서식품과 네슬레의 제품이 약 85% 이상 차지한다. 롯데, 남양 등은 기존의 인스턴트커피와 차별화 해 도전장을 던졌다. 롯데는 이과수산 아라비카 커피와 식물성 크림, 백설탕 등을 사용한 고품격 인스턴트 커피믹스를 내놓았다. 지하 1000m 천연 암반수를 이용해 커피를 추출, 동결건조 방식으로 제조해 분무건조 방식으로 제조된 인스턴트 커피에 비해 맛과 향에서 차별화를 선보였다. 또한 남양에서는 단 맛을 내는 합성첨가물을 줄이고 무지방 우유를 사용해 타 경쟁제품보다 열량이 낮은 제품을 선보였다.

바리스타 이종혁씨는 “인스턴트 커피는 워낙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중에 많은 인스턴트 커피가 진열되고 있지만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해 먹는 것을 권한다”며 “맛있게 먹고 싶다면 커피메이커에서 내린 원두커피에 맥스·초이스 병에 든 커피 한 스푼을 섞어 설명을 첨가하면 아메리카노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추천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영화 ‘클래스’ 소통이 자유로운 교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다



교실로 선생님(프랑수아 베고도)이 들어서는데, 학생들은 보는 중 마는 중 자기 일 하기에 바쁘다. “한 시간 수업을 떠들면서 보내서야 되겠느냐”는 선생님의 핀잔에, 학생들은 “엄밀히 말해 55분 수업인데, 왜 한 시간 수업이라고 하나”며 따지를 걸고, “책을 읽어 보라”는 지시엔 “지금 책 읽을 기본이 아니”라며 반항한다. 심지어 “선생님 게이 아니냐?”고 놀리는 학생까지.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고 교육받았던 우리나라 중년들이 보면 천지가 개벽했다며 혀를 찰까 할 일이고, 교권 침해니 뭐니 하며 하루 종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다.

다행히(?) 이 광경이 펼쳐지는 교실은 대한민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 교외의 한 중학교 교실이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여겨졌던 초반의 이러한 생각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슬슬 부러움으로 바뀐다. 당장 교실에서 발견되는 건 언쟁과 대립이지만, 그것이 있기 에 그들 사이에는 소통의 장이 열리고 교감의 순간이 찾아온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일반화된 우리에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작용되고 있는 그네들의 교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간인 셈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발언권을 주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클래스’ 속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래스’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대결만 그린 영화는 아니다. ‘클래스’의 교실은 다인종과 다문화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축소판으로도 기능한다. ‘외국인 학

생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로랑 강테 감독은 다문화·다인종 국가인 프랑스가 깊어지고 있는 고민에도 날카롭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하지만 무겁지는 않다.

아랍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다인종이 모인)프랑스 축구팀에 대입해 설명하는 재치가 영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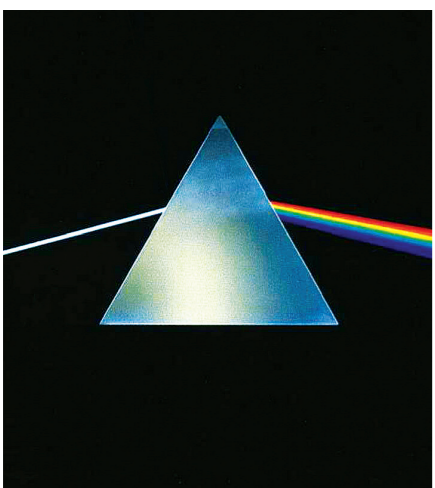
‘클래스’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로빈 윌리엄스)같은 영웅적인 스승도, 선생님의 사랑에 감명 받아 개과천신하는 학생도, 교육 시스템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도 없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경험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뿐이다. 물론 그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나 작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는 그러한 단계가 모이고 모여 한 인간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순간, 커다란 성장을 이룰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영화는 마지막, 텅 빈 교실 안을 카메라로 잡는다. 어지럽게 쓰러진 의자와 책상만이 고요하게 자리한 이 교실은 누군가에게는 발전의 역사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목의 역사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역사다. 하지만 또 하나, 누군가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꿈의 자리이기도 하다. ‘클래스’가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글·정사유 (무비스트 기자)

### ◆Diamond Records

## 〈The Dark Side Of The Moon(달의 어두운 면)〉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는 영국의 이름난 록 밴드들 중 하나로, 전위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효과를 결합시켜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는 장르를 반석 위에 올린 장본인이다. 초기의 핑크 플로이드는 사이키델

릭 록\*\*을 신봉하는 밴드였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운드의 도입을 거치면서 프로그레시브 록의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The Dark Side Of The Moon(달의 어두운 면)>은 이런 그들의 시도가 극대화된 작품이다.

이 앨범의 업적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1973년 3월에 발매되어 빌보드 앨범 차트에 741주, 영국 차트에 301주 동안 머무르는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앨범 하나로 핑크 플로이드는 4500만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하나의 앨범으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모두 기록한 셈이었다.

이런 상업적 성공 뒤에는 웅장하면서도 실험적인 전자 사운드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이키델릭 록의 한계에서 벗어 나고자 했던 핑크플로이드에게 실험적 사운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런 도전적인 시도는 당시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평론가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성공의 배경

이 단지 혁신적인 사운드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이 앨범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앨범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핑크 플로이드가 선택한 것이 가사의 내용이었다. 앨범의 수록곡인 ‘Money(돈)’에서는 자본과 시장의 역기능을, ‘Us and Them(우리와 그들)’에서는 전쟁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Time(시간)’, ‘Brain Damage(신경손상)’, ‘The Great Gig in the Sky(공공의 위대한 쇼)’ 등 앨범에 포진한 전곡이 스트레스, 우울증, 편집증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던 당시의 아티스트들과 비교해 핑크플로이드의 가사는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상업적 성공은 혁신적인 사운드에 진

보적인 가사가 더해져서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앨범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어 냈음에도, 현대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70년대부터 자본의 배분, 전쟁, 스트레스 등의 사회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회의 실패가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이 앨범의 미학이자 아이러니라 하겠다.

\*프로그레시브 록: 진보적인 록이라는 뜻으로, 사운드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시도가 돋보이는 록 음악을 말한다. 핑크 플로이드, 킹 크림슨(King Crimson), 예스(Yes) 등이 대표적인 밴드이다.

\*\*사이키델릭 록: 몽환적인 느낌이 강한 록이다. 마약의 일종인 LSD의 가운데 단어를 따서 에시드 록이라고도 한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사진이야기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상하이의 야경입니다. 상하이는 일찍부터 서구에 개항되어 발달한 곳으로 도시의 풍경 면면에 서구문물의 자취가 남아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풍깁니다.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고 운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동아시아 근현대사상 굵직한 사건들이 생생히 재현된 현장이기도 하지요. 각 도시마다 관광객 유치 경쟁, 랜드마크 경쟁을 벌이는 요즈음...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조성보다는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전통과 현대의 맛이 공존했던 상하이를 떠올려 봅니다.

김미래(역사문화 4)